

전 가 동 향

전선조합, 자동차용 전선 등 3개제품 정기심사

자동차용 저압전선, 저독성 난연폴리올레핀 전력제어용 케이블, 근거리통신케이블 등 전선류 3개 물품에 대한 정기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전선공업협동조합(이사장 최병철)은 전선류 KS표시인증제품의 성능을 향상·유지시키고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난 6월 27일 추가고시된 이들 3개 물품에 대해 제품심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선조합 품질관리 관계자는 “이번 추가고시 품목은 산

업표준화법에 의해 1년마다 제품심사를 받고 있는 기존 △600V비닐절연전선 △비닐코드 △600V고무절연캡타이어코드 등 3개 물품에 이어 처음으로 정기심사를 받게됐다”고 말했다.

전선조합은 기존의 600V비닐전선등 3개 물품에 대한 제품심사는 지난 8월말까지 완료하고 추가된 자동차용 저압전선 등 3개 물품도 10월 중으로 정기검사를 마무리해 11월 중 관계당국에 시험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선 내년도 한전 단가 체결

내년도 한전용 전선류 경쟁품목 8개, 1375억원 규모(예상물량)에 달하는 연간단가계약이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실시돼 평균 1% 정도 낮은 가격인 1330억원 규모에 낙찰됐다.

이번 입찰에는 지중 배전선로용 22.9kV CN·CV관련업체 15개사를 비롯, 가공선 알루미늄 강선업체 등 모두 30여개 업체가 품목별 입찰경쟁에 들어가 연간단가 배정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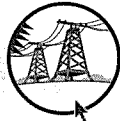
이번 입찰은 특히 예년과 달리 수출 내수 등에서 최악의 경기부진을 맞고 있는 상황이어서 물량배정을 놓고 상당

한 진통이 예상됐으나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품목별로는 지난 9월 30일 실시된 22.9kV CN·CV-W, 22.9kV FRCNCO-W 등 지중배전선로용이 총 730억원 상당에 낙찰돼 9개 업체가 배정을 받았다.

또 지난 10월 2일 실시된 가공전선부문 ACSR·AW-OC(알루미늄피복강선·알루미늄전선)유형에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참여해 500억원 규모의 낙찰물량을 18개 업체가 각각 단가계약 했다.

이밖에 600V CV, 나경동연선, 인하용 절연전선, DV전



전 가 동 향

선부문 등 일반 품목은 100억원 규모에 낙찰돼 19개 업체가 수주했다.

이번 한전용 전선 연간단가계약 품목의 납기는 낙찰일

로부터 1년이며 한전측의 발주사정에 따라 물량의 가감이 예상된다.

輸銀, 수출 유망中企 신용대출

한국수출입은행은 담보여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아 수출목적물 제작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곤란해 수출이행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수출 특례 신용대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출제도는 해외의 적격금융기관이 발행 또는 확인한 신용장방식 수출거래에 대해 수출입은행이 수출이행 능력 등 지원요건 부합여부를 심사해 제작자금을 신용으로 대출함으로써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

업들의 수출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의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청 선정 수출유망중소기업 및 Inno-Biz기업, 신기술 인증(NT) 또는 우수품질인증(EM) 중소기업 등이다.

대출한도는 신용장금액의 90% 범위내, 다만 신용대출한도는 5억원 이내로서 자기자본의 50%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6개월 이내이다.

무역연구소, 4분기 수출경기 전망 '호조'

4분기 수출기업의 체감경기는 3분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출경쟁력과 채산성은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가 921개 주요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EBSI)조사에 따르면, 수출기업의 체감경기지표인 전반적 수출경기

EBSI(Export B SI) 4분기 전망치는 119.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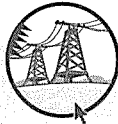
EBSI는 100을 기준으로 최대값 200, 최소값 0을 갖는 지수로서 전분기 대비 해당 분기 경기를 평가함에 있어 경기를 밝게 보는 의견이 많을수록 200에 가까워지고 경기를 어렵게 보는 의견이 많을수록 0에 가까워진다.

경기를 좋게 보는 의견과 나쁘게 보는 견해가 팽팽하게 균형을 이룰 경우 지수는 100이 된다.

전반적 수출경기 EBSI 추이(2002년)

구 분	1 분 기	2 분 기	3 분 기	4 분 기
전 망	-	-	144.5	119.8
실 적	-	128.7	95.5	-

무역협회는 이번 조사에서 4분기 수출경기가 3분기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는 견해가 나빠질 것으로 보는 쪽보다 우세한



전 가 동 향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3분기 전반적인 수출경기 EBSI의 실적치와 전망치는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 5월 전망에서는 3분기 전망치가 144.5로 수출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았으나 이번 8월 조사시 실적치가 95.5로 나타나 당초 기대와 달리 조사대상업체들은 본격적인 수출 회복세에 접어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4분기 수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는 되었으나 그 정도가 한풀 꺾인 것으로 분석됐다.

4분기 수출경기 전망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수출상당, 수출계약의 EBSI가 수출경기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

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수출업체 설비가동률 및 설비부자의 상승세도 뚜렷할 전망이다.

하지만 수출가격, 수출경쟁력, 수출채산성 악화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로는 산업용 전자, 중전기 등 뚜렷한 호조를 보이면서 중화학제품의 수출 회복세가 기대된다. 다만 수송기계 및 부품의 경우 수출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1차상품과 경공업 제품은 3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수출산업경기전망(EBSI) 119.8의 의미

수출회복 기대감 확산

현재 수출경기 국면을 바닥 내지 상승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했는데 조사대상 수출기업의 422%가 현재의 수출국면으로 응답하고 있으나 하강국면이라는 응답은 32.8%를 차지

품목별 전반적 수출경기 EBSI

품 목 별	2002년		품 목 별	2002년	
	3/4분기(실적)	4/4분기(실적)		3/4분기(실적)	4/4분기(실적)
1 차 상 품	85.7	108.6	석유화학제품	96.0	120.0
농 산 물	108.0	124.0	정밀화학제품	108.8	129.4
수 산 물	76.2	100.0	종 이 제 품	118.2	127.3
금 속 광 물	70.0	100.0	요 업 제 품	118.2	127.3
경공업제품	77.9	94.1	비철금속제품	73.3	106.7
섬 유 원 료	100.0	116.7	철 강 제 품	89.1	107.3
섬 유 사	87.5	137.5	산 업 용 전 자	126.2	166.7
직 물	77.1	81.3	전 자 부 품	116.2	134.3
섬 유 제 품	50.0	74.2	가 정 용 전 자	120.0	146.7
플라스틱제품	92.1	113.2	중 전 기 기	140.0	160.0
고 무 제 품	136.4	127.3	기초산업기계	90.9	127.3
가죽 및 모피	78.6	114.3	산 업 기 계	100.0	122.6
신 변 잡 화	83.5	108.9	정 밀 기 계	125.0	145.0
문 구	59.1	118.2	수 송 기 계	61.5	87.2
중화학제품	99.2	125.1	기 계 요 소	94.7	112.8
광물성 원료	83.3	100.0	전 산 업	95.5	119.8

했다.

○ 중전기 등 150이상 '매우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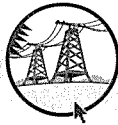
4분기 전반적 경기 EBSI는 119.8(전망)로 나타나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산업별로는 △매우 호조(EBSI 150이상)는 산업용전자, 중전기 등 2개 △호조(EBSI 110이상~150미만)는 농산물, 섬유

원료, 섬유사, 플라스틱제품, 고무제품, 가죽 및 모피, 문구, 석유화학제품, 정밀화학제품, 종이제품, 요업제품, 전자부품, 가정용전자, 기초산업기계, 산업기계, 정밀기계, 기계요소 등 17개 등을 기록했다.

부진(EBSI 50이상~90미만)은 직물, 섬유제품, 수송기계 등 3개였으며 매우 부진(EBSI 50미만)은 없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충북, 인천 지역의 체감 경기가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였는데 매우 호조(EBSI 150이상)는 없었으며 호조(110이상~150미만)는 인천, 경기, 부산, 경남, 충북, 광



전 가 동 향

주, 전남 등 6개, 나머지 서울 대구 경북 등 4개 지역은 보합(90이상~110미만)을 나타냈다.

항목별로는 수출상담, 수출계약이 수출경기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힘입어 수출업체 설비가동률 및 설비투자의 상승세도 뚜렷할 전망이다.

○ 섬유·수송기계등선 부진 전망

그러나 수출가격, 수출경쟁력, 수출채산성 악화라는 고질적

인 문제가 지속될 전망이다.

4분기중 예상되는 가장 큰 수출애로 요인은 원화 환율 변동성 확대(32.9%), 중국 등의 시장잠식(21.7%)을 꼽고 있는데 환율의 변동성 확대를 언급한 비율이 3분기와 4분기 모두 30%를 넘어 업계는 환율 하락을 최대 수출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이밖에 수출대상국 경기부진(19.8%), 자금난(4.4%), 수입규제(2.7%)의 순을 보였다.

선박용전선·내온관용트랜스포머 등, 세계일류상품 61개 선정

선박용 전선, 내온관용 트랜스포머를 비롯한 총 61개 제품이 올 하반기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됐다.

세계일류상품 발전심의회는 산업자원부 회의실에서 위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회의를 열고 선박용 전선 등 61개 품목을 올해의 하반기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된 품목들은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4일까지 신청된 120여개 품목에 대해 13개 업종별 추천위원회의 1차 심사를 거쳐 추천된 77개 품목 중에서 가려진 것이다.

하반기 선정 품목 중 선박용 전선은 현재 세계시장 점

유율 1위로 작년말 기준 약 9700만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 극동전선, LG전선, 진로산업 등이 생산 공급하고 있다.

또 포스코가 신일본제철 등과 경쟁하고 있는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분야에서 3위로 오름에 따라 고기술로 평가돼 선정됐다.

이와 함께 전기업종 신소재 분야에서는 대한트랜스, 광운전기가 생산하고 있는 내온관용 트랜스포머와 성원전기공업이 독보적으로 개발해 수출 150만달러를 기록한 내화전선용 마이카테이프 등이 하반기 세계일류상품에 올랐다.